民主主義의 代辯者

에이브라함·링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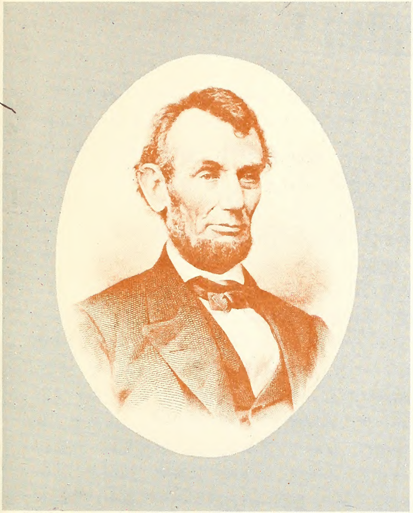
KOREAN

1959-161

U.S. Information Serv.

Abraham Lincoln-Spokesman for Democracy

(U.S. Information Service) (Korean) 1959-161



民主主義의代辯者

"自由와 獨立의 防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防壁 위의 어마어마한 銃眼도 아니요 거치른 海邊도 아니요 戰鬪艦의 포문도 아니요 또한 대담하고 단련된 군대도 아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 강토에 또다시 暴政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는데 있어 그런것을 믿지않는다. 그런것은 모두가 自由를 등지고 돌아설수 있는것으로 우리의 鬪爭에 있어 아무런 相關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神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신 自由愛이다. 우리는 自由를 萬人의 遺產으로 崇尙하는 정신을 수호함으로서 우리를 방위한다. 門前에 독재정치의 씨를 뿌릴려거든 이 정신을 破壞하라"(1)

본문에 첨가된 번호는 뒷「페지」에 수록한 영문을 참고한것을 뜻한다

民主主義의代辯者「에이브라함 - 링컨」

"世界는 일찌기 自由라는 말의 適切한 正義를 가져보지 못하였다. 오늘날 미국국민에게 심히 缺如되어 있는것은 自由의 定義다."

링컨이 이러한 말을 한지 약 一世紀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가 살아 온 生涯와 그가 말한 모든 구절로서 우리에게 缺如되었던 自由의 概念을 우리는 오늘날 가지게 된것이다.

1809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美國의 立憲政治는——그러한 정치로서는 이것이 세계에서 최초의 것이었다——겨우 20年밖에 안 되었었다. 링컨의 生前에 立憲政治의 기초는 바로 試鍊期에 處해 있었다. 구구한 理論의 時代는 지나갔다. 모세에서 제퍼슨에 이르기까지 許多한 思想家들이 제창한 人間의 權利와 正義와 尊嚴의 관념은 數千年來의 고귀한 사상이거니와 이제 그것이 實在하는 하나의 政治속에 具現되었고, 自己保存에 對한 그의 能力이 試驗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生存時에 미국에서 決定되고 있는 일은 곧 世界 萬代를 위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을 링컨은 갖고 있었다. 링컨은 이것을 친히 통찰할수 있었기 때문에 美國民에게 그들의 歷史的使命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 링컨은 自由의 遺產을 국민에게 등불로서 提高할 수 있었고, 이 自由의 등불은 링컨의 말을 통하여 國民의 生活속에 不滅의 빛을 던지었다. 미국은 愛國者가 必要했고, 歷史는 애국자 이상의 人物을 마련해 주었다. 에이브라함•링컨은 미국뿐만 아니라 全人類를 위하여 民主主義의 代辯者가 되었다.

"世界는 일찌기 自由의 適切한 正義를 가져보지 못하였다"고 링컨은 말하였다. 링컨은 또한 우리가 周知하는바 하나의 딜렘마를 말하였다.

우리는 모두 自由를 원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똑같이 自由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서로 意味하는 바가 같지 않다. 甲에게 있어서 自由라는 말은 自己자신과 자기의 勞動의 産物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처리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自由라는 말은 他人과 他人의 勞動의 成果를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모순대립하는 두가지 事物이 꼭 같이 自由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그러므로 두 사물이 각각 서로 모순대립하는 이름, 즉 自由와 專制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셈이다.

牧者는 羊의목에서 이리를 쫓아버린다. 이에대해서 羊은 牧者를 해방의 은인으로 感謝하지만 이리는 그를 가리켜서 自由의 破壞者라고 비난한다…분명히 羊과 이리는 自由라는 말에 대해서 定義가 각각 다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와 꼭 같은 差異는 오늘날 人間들 사이에, 심지어 미국 北方에서도 얼마든지 볼수 있다.

그러면서 모두 자유를 사랑한다고 외친다. (2)

自由의 本質의 문제는 抽象的思想의 문제가 아니고, 人間生活의 實際的 適用의 문제로서 一生동안 링컨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링컨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建國祖上들의 말—獨立宣言과 美國憲法—이 깃들이고 있었다. 독립선언과 미국헌법에 具現된 觀念은 링컨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고, 또 심히 소중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言行은 그 觀念에 새로운 表現을 주었다.

그러한 觀念에 입각해서 諸般重大問題를 다루는것이 링컨의 運命이었다. 대다수의 미국인이 본바와같이 奴隸制度가 문제였다. 즉 미국南方諸州에서는 사람들이 黑人을 재산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이었다.

"萬一 노예제도가 나쁜것이 아니라면 이세상에 나쁜것이란 하나도 없다"(3)고 링컨은 말하였다. 그러나 問題는 奴隸制度에 있는것이 아니고 自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넓은 視野를 링컨은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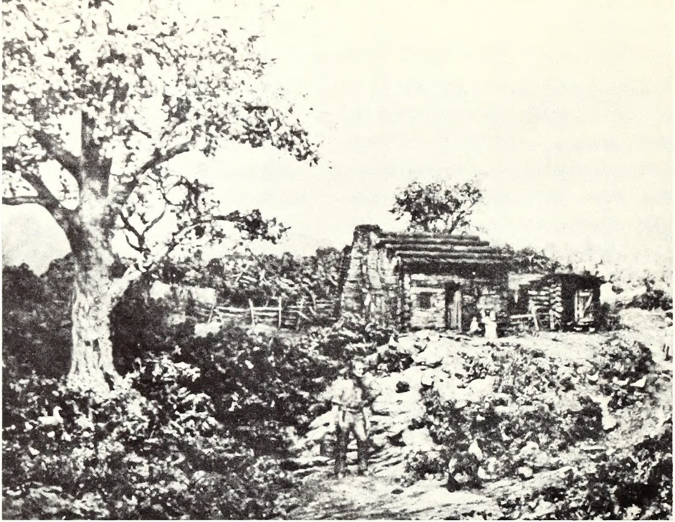
그는 자기 주위에서 繁榮成長하는 新興國家를 보았고 또 自由가 政治의 源泉인 거와 마찬가지로 自由는 또한 勇氣의 源泉임을 그는 알았다. "이것은 모두가 偶然의 결과는 아니다"고 그는 말하였다. "거기에는 哲學的 原因이 있다. 憲法과 統一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美國의 위대한 繁榮의 근본원인은 아니다. 그 밑바닥에는 人間의 心靈과 깊이 결부된 무엇이 있다. 萬人에 대한 自由의 原理가 즉 그것이다. 즉 萬人의 길을 밝혀주고 萬人에게 希望을 던져주고 그결과 萬人에게 企業과 産業을 주는 原理다"(4)

대부분의 政府는 사실상, 人間의 平等한 權利의 否定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우리 政府는 인간의 평등한 權利를 肯定하는데서부터 시작했다. 인간은 너무 無智 惡德하므로 政治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필시 그러리라고 우리도 말하였다. 또 그러한 體制로 사람들을 언제나 無智와 惡德의 상태에서 헤매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萬人에게 機會를 주자고 주장하였다. 또 약자가 강해지고, 無智한 者가 현명해지고 萬人이 다같이 善良, 幸福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였다……"(5)

링컨은 自由의 觀念을 의미심장하게도 다음과 같은 한 文章으로 설명하였다.

各個人은 날때부터 他人의 권리를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勞動의 成果를 자기가 원하는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6)

링컨이 大統領으로 당선되기 몇해 전에, 노예제도를 公的으로 토론하였을 때 링컨은 자기의 論敵인 「스티픈 A 다글라스」 判事가 바로 이와같은 個人의 權利의 觀念을 이용해 가지고 奴隸制度 存續찬성론을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만일 甲이라는 사람이 黑人을 노예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第三者나 政府의 관여할바가 아니다 하는 "自治論"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말하였다. 링컨은 이러한 主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확고한 論理를 가지고 논박하였다.



「에이브라함.링컨」은 1809년 2월12일 「켄탁키」주의 한 통나무집에서 탄생하였다 이 사진은 그 통나무집을 본따서 지은 것으로 지금 「시카고」역사학회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한때「링컨」은 자기 생애를 표하면서 시인「토마스.그레이」의 시귀(詩句)를 인용하였다:「짤막하고 단순한 빈자(貧者)의년보(年譜)」

누구든지 순전히 자기 個人的인 일에 한해서는 곧 자기가 원하는대로 行動해야 한다는 命題가 옳다는 信念. 이것이 나의 正義 觀念의 기초다. 自治의 理論은 옳다! 절대적으로 영원히 옳다 —그러나 다글라스 判事가 여기서 의도하는것 처럼 이 理論을 適用시킬 수는 없다. 이 이론을 그렇게 適用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는 黑人이 人間이냐 인간아니냐하는 問題에 달려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만일 黑人이 人間이 아니라면 그 경우에는, 自治의 문제로서 黑人에 관하여 그는 마음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萬一 黑人이 인간인 경우에 黑人에게 自治를 줄수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自治를 全的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白人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경우에 그것은 自治라 하겠다. 그러나 白人이 自己자신을 다스리고 또 남도 다스린다면 그것은 自治가 아니다 ——그것은 곧 專制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他人의 同意없이 남을 다스릴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美國 共和主義의 근본원칙——의지할만한 生命線——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 獨立宣言書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眞理를 自明한 것으로 주장한다. 즉 모든 人間이 平等하게 창조된 것이요 모든 人間은 生命, 自由, 幸福追求의 권리를 不可讓渡의 권리로서 造物主로부터 賦與된 것이요, 또 이러한 權利를 확보하기 위해서 人民속에서 政府가 수립된 것이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被治者의 同意에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의 오랜 信念에 의하면 政府의 정당한 권력은 被治者의 同意에서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는 여기서 긴 引用을 하는 것이다…… 모든 被治者에게 政治에 대한 平等한 發言權을 주어라, 그것이, 그것만이 自治라 하겠다.(8)

"나는 종 살이 하기를 원치않듯이 主人노릇 하기도 원치 않는다(9)"고 링컨은 말하였다. 또 그는 平等社會의 自由의 意味에 관하여 아주 실제적인 實例를 들어서 그 원리를 다음과같이 설명하였다. 그 이야



1837년 당시 「링컨」이 변호사로서 내왕하던 「이리노이」주 「스프링필드」시의 시가를 배경으로 젊은 「링컨」이 묘사되었다 훗날 그는 「우리들에게는 종신고용된 계급이란것이 없다 25년전 나는 고용된 노동자였다 어제의 피고용자는 오늘 자립하고 내일에는 타인을 고용하여 자기 일을 도우게 할수 있다 조건의 개선 즉 발전은 평등사회의 당연한 이치이다」(7)

기는 平等하게 창조된 두 인간에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름을 A와 B라고 해 두자.

만일 A가 자기는 당연히 B를 노예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어째서 B도 또한 자기도 A를 노예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同一한 論法을 써서 꼭 같이 증명하지 아니하겠는가?

A는 白人인데 B는 黑人이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것은 피부의 빛갈이다. 그러면 빛이 흰 사람은 빛이 검은 사람을 奴隷로 삼을수 있는 權利를가졌단 말인가? 그래 이 원칙에 의한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보다 맑은 皮膚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奴隷가 되어야한단 말이지?

정확히 말한면 그것은 피부의 빛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주장한다. 그러면 白人들은 黑人들보다 知的으로 優越하니까 黑人을 노예로 만들 권리가 있단 말인가? 그래 잠간만, 이 原則에 의한다면, 당신은 자기보다 우수한 知性을 가진 사람을 먼저 만나면 그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 그것은 利害관계의 문제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의 利益이 될 수 있다면 他人을 노예로 삼을 권리가있다는 셈이지? 그래 좋아, 그러면 만일 당신이 그의 利益이 될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10)

"奴隷"라는 말은 오늘날 좀더 象徵的인 의미를 갖고 있다. 링컨은 甲이 乙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權利를 단순히 탓하는 것이 아니고 甲이 乙의 自由를 否定하는 惡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報償의 세계다. 그러므로 남의 奴隷가 되기를 원치 않는 者는 奴隷를 所有하는데 찬성해서는 아니된다. 他人의 自由를 否定하는 者는 自己 자신에 대해서 自由를 허용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義로운 하느님 밑에서는 그것을 오래 간작할 수 없다.

모든 榮光을 제퍼슨에게 돌려라.— 한 國民의 國家獨立 鬪爭을 앞에 놓고 모든 人間과 모든 時代에 적용할 수 있는 抽象的 眞理를 순전히 革命的인 文書로서 내놓을 수 있는 冷靜과 先見과 能力을 가졌던 人間, 제퍼슨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라. (11)

링컨은 여러번 제퍼슨과 여러 美國建設者들의 말에 思索을 기울여 그들의 觀念에서 힘의 根源을 탐구하였다. 1861年 링컨이 새로 당선된 美國 第六代 대통령으로서 일리노이州스프링필드의 집을 떠나 워싱톤 官邸로 向할때, 歷史的 首都인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를 통과한 일이 있거니와 링컨은 죠오지 워싱톤,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그밖의 建國始祖들이 美植民地를 英國에서 分離시킨 獨立宣言을 作成한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一國民의 國家的 獨立鬪爭" 이상의 그 무엇이 독립선언서 속에 표현되어 있었다. 그 문서는 國家나 政府보다도 인간의 心靈을 다루는 그무엇이었다. 필라델피아 獨立記念館에 들어섰을때 링컨의 가슴속에는 "그 무엇"이 깊이 파고 들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온갖 政治的 感情은, 그 由來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 독립기념관에서 發祥했고, 이 독립기념관이 世界에 던진 感情에서 由來한 것이었다. 獨立宣言속에 具現된 感情에서 由來치 아니한 감정을 나는 政治的으로 가져본일이 없다. 이 기념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작성採擇한 여러 人士들이 겪은 가지가지의 危險을 나는 여러번 默想해 보았다. 또 美國獨立을 완수한 軍隊의 여러장병들이 갖은 苦難을 나는 회상해 보았다. 十三個州의 同盟을 그처럼 장구하게 結束시킨것은 과연 어떤 위대한 原理, 내지 觀念이었을까하고 自問하는 일이 非一非再였다. 그것은 단순히 植民地가 母國에서 分離한다는 문제가 아니었다. 비단 美國民뿐만이 아니라 아마 世界 만대에 自由를 준 獨立宣言의 感情이 즉 그것이었다. 때가 무르익으면 모든 人間의 어깨

에서 무서운 짐을 벗게하리라는 약속을 준것은 이 감정이었다.(12)

美國의 獨立完遂보다는 美國民으로 하여금 獨立을 願하게 한 그 理念이 더 중요하다고 링컨은 주장하였다. 미국 獨立이라는 단순한 그 사실은 본래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 獨立의 原理에 비추어서 그러한 行動을 한 것, 그것이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建國始祖들의 마음속에는 新國家建設이상의 이념이 있었다.

萬人에게 親近하고, 萬人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自由社會의 기본원칙을 그들은 수립하려고 하였다. 不斷히 바라다 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不斷히 노력하고, 完全成就는 아니되더라도 不斷히 接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影響力을 不斷히 擴大, 深化하고, 世界 到處의 모든 人種과 國民에게 人生의 幸福과 가치를 증진시킬수 있는 기본원칙의 수립이 그들의 念願이었었다.

"萬民이 平等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미국을 英國에서 分離시키는데 하등 實際的 효과가 있은 것은 아니었다. 이 主張이 독립선언에 채택된것은 그 때문이 아니고 未來에 쓰기 위해서였다. 後日에 이르러 自由國民을 可憎한 專制主義의 路線으로 전향시키려고 하는 人間들에게 障礙의 바위를 만들려고 함이 독립선언 起草者의 의도였다. 그것이 오늘날 實證되고 있는것이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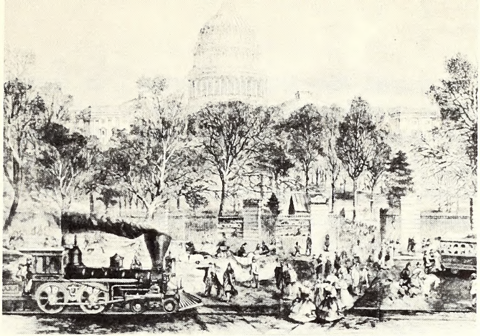
링컨에게는 비단 祖國일뿐이 아니라 그의 모든 原理의 具現인 미국국민에게 大統領으로서 발언해야할 처지에 이르렀다. 링컨이 大統領으로 취임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南北間의 긴장은 폭발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일리노이州 出身의 시골변호사인 링컨으로서는 자기앞에 놓여진 課業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過大한 權力을 자기에게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微弱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權力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리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링컨은 就任연설에서, 유모라스하게 美國大統領의 職分에관한 자기 概念을 말하고, 美國政治體制의 內的勢力에 관해서 國民을 안심시키려고 하였다.

「펜실베이니아」주「피라델피아」시의 독립회관이 1776년 그회관 안에서 서명된 독립선언문 서명광경을 배경으로 그려졌다 「링컨」은 1861년 「워싱톤」으로 향하는 도중이 회관을 방문하였다







「워싱톤」시에 있는 중앙청 출입구를 묘사한이 그림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때 그려신것이다

大統領의 모든 權力은 國民에서 유래한다. 대통령의 의무는 그가 물려받은 現政府를 관리하고, 온전한 상태로 後繼者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國民의 究極的 正義에대한 굳건한 信念이 왜 없는가? 世界에 대한 善한 또는 平等한 希望이 있는가? 국민들이 德과 警戒心을 지니고 있는 限, 어떠한 行政도 지나치게 弱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愚鈍하여 四年이란 短時日동안에 政府에 큰 害를 끼칠수는 없는 것이다.(14)

링컨이 大統領에 就任하기 前에 이미 激化한 분쟁의 激流는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링컨으로서 挽回할 도리가 없었다. 그가 白堊館에 온지 六週日 못되어 미국은 戰爭상태에 들어갔다. 이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길은 言論이 아니고 戰爭이었다.

이 戰爭엔 당연히 勝利해야 할뿐만 아니라 싸우는者와 싸움을 구경하는者들도——링컨은 그것을 "人類의 全家族"이라고 칭했다—— 이 전쟁의 問題點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政府의 공격자들은 "即時 解散이냐 피냐?"하는 중대문제를 국가에 強要하였다.

또 이것은 미국의 運命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立憲國家 또는 民主主義 同一한 國民에 의한 國民의 政治— 가 國內의 敵에 대해서 領土的 保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를 人類의 全家族에에 提起한다. 아무래도 制定된 法대로 行政하기에는 수효가 너무 적은 不平不滿한 個人들이 이런 口實 저런 口實을 만들어서—任意로 또는 아무 口實도 없이 우리 政府를 파괴하여 사실상 地上의 自由政府에 終結을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한다. "모든 國家에는 이와같은 內在的 運命的 弱點이 있느냐?"

政府란 당연히 너무 강하면 국민의 自由에 맞지 않고 너무 弱하면 存在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로 하여금 提起케 한다. 우리 平民의 政府는 하나의 實驗이라고 칭해왔다. 그中에서 이미 두가지 문제가 解決되었다. 하나는 政府를 훌륭하게 樹立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政府를 훌륭하게 관리하는 문제다. 그러나 하나 더 남아 있다. 즉 政府를 전복하려고 하는 무서운 國內 企圖에 대해서 政府를 온전히 지키는 문제다. 公正한 選擧를 할수 있는者는 또한 반란을 물리칠수 있다는것, 投票는 彈丸에 대한 正當하고 平和로운 계승자라는것, 投票가 公正하게 合法的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彈丸에 호소해도 쓸데 없다는것, 選擧를 계속하는 경우에 투표 이외에는 成功의 길이 있을수 없다는것, 이런것을 民衆들이 지금 世上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平和의 위대한 教訓이다. 즉 선거를 통해서 얻을수 없는것은 戰爭을 통해서도 얻을수 없다는것을 人間에게 가르쳐주고, 또 戰爭을 시작하는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것이다.(15)

美國政府뿐만이 아니라 바로 미국정부의 기본 原理가 試鍊臺上에 올랐다. 링컨 대통령은 發言할때마다 그 原理를 再是認하였고, 그 원리를 保存할 責任觀念을 주려고 하였다. 大戰場에 共同묘지를 獻呈하는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7年前 우리의 祖上은 이 大陸위에 自由의 理念과 萬人平等의 原則위에 새 나라를 이룩해 놓았읍니다. 이제 우리는 큰 內亂을 겪고 있읍니다. 그러한 理念과 原則위에 탄생한 나라가 永久히 지탱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試鍊를 당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제 이 戰爭의 큰 전쟁터에 모여서 이땅의 한 조각을 護國勇士의 영령을 모시는 최후의 安息處에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땅을 奉納하여 신성한 터전으로 만들수 없는 者들입니다. 여기서 싸우시다가 이미 가신 勇士나 지금 살아계신 용사가 이미 이땅을 神聖한 터전으로 만들었으며 우리의 微力으로서는 一點의 加할것이 있고 一點의 減할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이야기를 世界가 별로 알지 못할것이요, 또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몰 勇士들이 여기서 이루어 놓은 업적은 결코 잊을수가 없읍니다. 오히려 우리들 살아있는 者들은 그들이 훌륭하게 推進해 놓은 未完成의 課業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바쳐야 겠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一大課業을 위하여 우리는 忠誠을 다해야 겠읍니다——이미 故人이 되신 勇士들의 뜻을 받들어 그들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一片丹心을 기울인 그 大義를 위하여 우리는 加一層 헌신해야 겠으며, 죽은者의 生命의 값을 헛되히 않으려는 큰 決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품어야 겠읍니다. 또 하느님의 보호속에 이 나라를 自由의 새로운 誕生으로 삼아야 겠읍니다. 끝으로 人民을 위하여 人民이 다스리는 自由의 政治가 이 地上에서 滅亡케해서는 아니되겠읍니다."(16)

戰線에서 歸還하는 兵士들에게 링컨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平生토록 누린 이 위대한 自由政治를 우리 후손에게 계승시켜야 하는 것은 오늘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後世萬代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잠시동안 우연히 이 白堊館의 주인이 되었읍니다. 나는 여러분의 子女들도 나처럼 白堊館의 主人이 될수있다는 산 證據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린 이 自由政治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産業과 企業과 知性을위한 公正한 機會와 넓은 터전을 가지기 위해서요 또 여러분이 모두다 온갖 훌륭한 人間의 理想을 품고 生活競爭에서 平等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의 生存權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싸움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와같이 귀중한 가치를 確保하기 위해서 國家는 싸울보람이 있는것입니다.(17)

링컨은 또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忠告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歷史에서 도피할수 없읍니다. 人間의 價値여부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 할수는 없읍니다. 우리가 치르는 무서운 시련은 요다음 世代에 대해서 우리를 영광되게 또는 恥辱되게 비쳐 줄것입니다. 우리는——여기에 있는 우리들도——힘과 責任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최후 최선의 希望을 고귀하게 간직하거나 비열하게 잃어버릴 것입니다.(18)

링컨은 四年의 戰爭기간중 거의 수면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번 戰鬪부대를 방문하여, 여러중대를 다니며 兵士와 악수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니 반가우이"하고 인사하군 하였다. 병원의 부상병에 대해서는 격려와 동정의 말을 던지었다. 또 날마다 兵士들의 아내, 어머니, 미망인들이 白堊館을 방문하여 링컨의 도움을 구하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링컨은 편안한 날이 없었다. 流血의 비극을 보



논것은 견딜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勝利없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一切가 水泡로 돌아가는것이요 國家와 국가의 大義를 世界앞에 상실하는것이 된다. 전쟁이 가장 암담한 시간에 링컨은 人間의 生命을 인도하는 神秘한 힘을 명상하였다.

神의 뜻은 遍在하신다. 큰 戰爭을 할때 저마다 자기편이 神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雙方이 다 神의 뜻에 어긋난건지도 모르나 그러나 하나만은 어긋났어야 한다. 神은 동시에 같은 일을 찬성하고 反對할수는 없다. 현재의 南北전쟁에 있어서 神의 目的은 南北雙方의 목적과 다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人間의 여러가지 手段은 神의 目的을 들어내는데 가장 적응한다. 神은 이전쟁을 원하신다는것 또 神은 이전쟁을 아직 끝내시지 않기를 원한다는것, 이것은 아마 진리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南北雙方의 경쟁자의 마음에 神의 조용한 힘이 가하였던들 人間의 戰爭없이 神은 美國을 구제할수 있고 破滅시킬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했기 때문에 神은 언제든지 어느 한便에 최후의 승리를 줄수 있다. 아직 전쟁은 진행중에 있다. (19)

戰時中에 國民총선거의 때가 왔다. 링컨은 四年의 임기를 치렀었다. 링컨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있는 美國 헌법에 의하면 戰時임에도 불구하고 누구가 다음 四年동안 국민을 영도할 것인지 國民들은 투표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전선에서 전쟁이 계속하는 동안, 國內에서는 선거운동이 벌어졌다. 1864年 11月 10日 워싱톤市民들은 再選된 링컨에게 세레나데를 부르기 위해서 白堊舘에 모였다. 링컨은 그것을 듣고, 그가 이제 승리한 선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國民의 여러가지 自由를 확보해 줄만한 힘이 없는 政府가 國家存亡之秋을 당하여 스스로의 명맥을 유지할수 있도록 强해질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중대한 問題였다. 이점에 관해서 現在의 반란군은 우리나라에게 가혹한 試鍊을 加하였다. 반란중에 예정대로 시행된 大統領선거는 여기에 적지않은 拍車를 가하였다.

만일 統一된 忠誠스러운 國民들이 반란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을 탕진한다면, 內部의 政治的 싸움으로 갈라지고 部分的으로 무력해 질때 그들이 어찌 失敗치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選擧는 피치못할 일이었다. 우리는 선거없이 自由政府를 가질수 없다. 또 만일 叛亂軍이 우리에게 自由選擧를 先行하거나 연기시키게 할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征服하고 滅亡시켰다는 사실의 承認을 요구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選擧는, 거기에 부수한 不美한 鬪爭도 있기는 있었지만 원만히 끝났다. 이것은 人民들의 政府가, 大內亂속에서 國民選擧를 할수 있음을 實證하였다. 이런일이 可能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世界에 인식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반란은 계속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모두 共同의 利益을 갖고있는 이상 우리의 共同國家를 구하기 위하여 共同勢力속에 다시 統一되면 좋지 않겠는가? 나와 意見이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同一한 정신을 가지고 같은 方向으로 나와 더불어 參與하기를 원하고저 합니다……(20)

民主主義의 깊은 교훈은 이러한 말속에 있었다. 링컨은 敗北한 側이 이제 屈服하기를 원한것이 아니고 勝利한者가 敗北한者나 平等한 인간으로서, 全體國家의 意思에 민감한 政府의 行動속에서 다시 參加하기를 요구하였다. 이것이 國民選擧 다음에 오는 일에 대한 링컨의 생각이었다. 內亂終結後에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링컨의 생각은 이와 꼭 같은 原因속에 있었다.

南北전쟁은 피비린내나는 長久한 가혹한 싸움이었다. 어느편이 이기든, 勝利者側에서는 복수욕이 高潮될것은 빤한 일이다. 그러나 링컨은 다시 同情과 용서를 강조하였다. 만일 나라를 건질수 있다면 그 싸



이것은 미술가 「후렛처·C·란솜」씨가 그린것으로 「링컨」은 지금 「게티스버그」연설 당시 사진사 한명이 있었지만 연설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는 미처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다

움은 民主主義를 위해서 싸운것이지 목숨를 위해서 싸운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民主主義의 原則를 널리 실천하라. 國家가 勝利의 目的을 잃어버린다면, 전쟁에 이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기억하고, 强者는 弱者를 도웁시다. 그러므로 戰爭의 종결이 가까왔을 때 링컨 大統領은 美國民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을 하였다.

아무에게 대해서도 惡意를 품지 말고 他人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자. 神은 우리에게 正義를 보는 힘을 주었은즉 正義에 대한 信念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하는 사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자. 國民의 상처를 감싸주고 전쟁에 고생한者와 미망인과 그의 孤兒를 돌보고 우리들 마음속에 또 모든 國民들과 더불어 義롭고 永遠한 平和를 존중 成就하는 온갖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21)

워싱톤市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고귀한 記念館이 서있다. 그리고 그안의 링컨의 큰 座像위 大理石벽에는 다음과 같은 碑銘이 새겨있다. "링컨의 記憶은 그가 救한 미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된 거와 같이 이 기념관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다."

그가 美國을 구한것은 온 世界를 위해서였다. 또 링컨에 관한 記憶에서 떠날수 없는것은, 世界到處의 人民들의 가슴속에 民主主義의 관념이 살고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링컨이 民主主義의 영원한 代辯者였기 때문이다.

——끝——

"옛날 東方의 한 君主가 賢臣들을 모아 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時間과 場所를 超脫한 戒銘句를 한귀 上進하도록 命하였던바 賢臣들은 "이것도 한때이다"라는 글귀를 上進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어쩌다가 自慢하게 되거나 또는 苦憫하게 될때 "이것도 한때이다"고 想念한다면 어떨까? 自慢은 自制로 變할것이고 苦憫은 慰安으로 흘러갈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意味深長한 말을 움직일 수 없는 眞理로 믿지 말아야 한다. 내 변두리의 物界를 最大限으로 開發하고 내 마음속의 知的 道德的世界를 最高度로 啓發함으로서 우리는 땅의 생명과 더불어 영원히 계속될 個人的 社會的 政治的 繁榮과 幸福을 얻을 수 있다고 마음먹도록 하자. 그런 繁榮과 幸福은 날이 갈수록 더높고 더크게 뻗어나간다"(22)

부 록

다음은 본 책자에 인용된 「링컨」의 연설 및 기록문 원문으로 각 인용문 뒤에는 연설 기일 및 장소가 표시되어있다.

1. What constitutes the bulwark of our own liberty and independence? It is not our frowning battlements, our bristling sea coasts, the guns of our war steamers or the strength of our gallant and disciplined army. These are not our reliance against a resumption of tyranny in our fair land. All of them may be turned against our liberties without making us stronger or weaker for the struggle. Our reliance is in the *love of liberty* which God has placed in our bosoms. Our defense is in the preservation of the spirit which prizes liberty as the heritage of all men, in all lands, everywhere. Destroy this spirit, and you have planted the seeds of despotism around your own doors.—Debate at Edwardsville, Illinois, September 11, 1858.

2. The world has never had a good definition of the word liberty, and the American people, just now, are much in want of one. We all declare for liberty; but in using the same word, we do not all mean the same thing. With some the word liberty may mean for each man to do as he pleases with himself and the product of his labor; while with others the same word may mean for some men to do as they please with other men and the product of other men's labor. Here are two not only different but incompatible things, called by the same name—liberty. And it follows that each of the things is, by the respective parties, called by two different and incompatible names—liberty and tyranny.

   The shepherd drives the wolf from the sheep's

throat, for which the sheep thanks the shepherd as a *liberator*, while the wolf denounces him for the same act as the destroyer of liberty... Plainly the sheep and the wolf are not agreed upon a definition of the word liberty; and precisely the same difference prevails today among us human creatures, even in the North, and all professing to love liberty.—At Sanitary Fair in Baltimore, Maryland, April 18, 1864.

3. If slavery is not wrong, nothing is wrong.—Letter dated April 4, 1864.

4. All this is not the result of an accident. It has a philosophical cause. Without the Constitution and the Union, we could not have attained the result; but even these are not the primary cause of our great prosperity. There is something back of these, entwining itself more closely about the human heart. That something is the principle of "Liberty to all"—the principle that clears the *path* for all—gives *hope* to all—and by consequence, *enterprise* and *industry* to all.—Fragment, 1860.

5. Most governments have been based, practically, on the denial of equal rights of men; *ours* began by *affirming* these rights. *They* said, some men are too ignorant, and vicious to share in government. Possibly so, said we: and by your system, you would always keep them ignorant and vicious. We proposed to give *all* a chance; and we expected the weak to grow stronger, the ignorant wiser; and all better, and happier together.—Fragment, possibly July, 1854.

6. I believe each individual is naturally entitled to do as he pleases with himself and the fruit of his labor, so far as it in no wise interferes with any other man's rights.—Debate at Chicago, July 10, 1858.

7. There is no permanent class of hired laborers amongst us. Twenty-five years ago, I was a hired laborer. The hired laborer of yesterday labors on his own account today; and will hire others to labor for him tomorrow. Advancement—improvement in condition—is the order of things in a society of equals.—Fragment, possibly 1859.

8. My faith in the proposition that each man

should do precisely as he pleases with all that is exclusively his own, lies at the foundation of the sense of justice there is in me.

The doctrine of self-government is right—absolutely and eternally right—but it has no just application as here attempted. Or perhaps I should rather say that whether it has such application depends on whether a negro is *not* or *is* a man. If he is *not* a man, why in that case, he who is a man may, as a matter of self-government do just as he pleases with him. But if the negro *is* a man, is it not to that extent a total destruction of self-government to say that he, too, shall not govern himself? When the white man governs himself, that is self-government; but when he governs himself and also governs another man, that is more than self-government—that is despotism....

No man is good enough to govern another man, without that other's consent. I say this is the leading principle—the sheet anchor—of American republicanism. Ou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ays: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I have quoted so much at this time merely to show that according to our ancient faith, the just powers of governments are derived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llow ALL the governed an equal voice in the government, and that, and that only, is self-government.—At Peoria, Illinois, October 16 1854.

9. As I would not be a slave, so I would not be a master.—Fragment, possibly August, 1858.

10. If A. can prove, however conclusively, that he may of right enslave B., why may not B. snatch the same argument and prove equally that he may enslave A.?

You say A. is white and B. is black. It is color then: the lighter having the right to enslave the darker? Take care. By this rule,

you are to be slave to the first man you meet with fairer skin than your own.

You do not mean *color* exactly?—You mean the whites are *intellectually* the superiors of the blacks, and therefore have the right to enslave them? Take care again. By this rule, you are to be slave to the first man you meet with an intellect superior to your own.

But, say you, it is a question of *interest:* and if you can make it your interest, you have the right to enslave another. Very well. And if he can make it his interest, he has the right to enslave you.—Fragment, possibly 1854.

11. This is a world of compensations; and he who would be no slave must consent to have no slave. Those who deny freedom to others deserve it not for themselves; and, under a just God, cannot long retain it.

All honor to Jefferson—to the man who, in the concrete presence of a struggle for national independence by a single people, had the coolness, forecast, and capacity to introduce into a merely revolutionary document, an abstract truth applicable to all men and all times, and so to embalm it there, that today and in all coming days it shall be a rebuke and a stumbling block to the very harbingers of reappearing tyranny and oppression.—Letter, April 6, 1859.

12. All the political sentiments I have entertained have been drawn, so far as I have been able to draw them, from the sentiments which originated and were given to the world from this hall. I have never had a feeling politically that did not spring from the sentiments embodied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 have often pondered over the dangers which were incurred by the men who assembled here, and framed and adopted tha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 have pondered over the toils that were endured by the officers and soldiers of the army who achieved that Independence. I have often inquired of myself what great principle or idea it was that kept this Confederacy so long together. It was not the mere matter of separation of the Colonies from the motherland; but that sentiment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ich gave liberty, not



1864년 당시의 「링컨」 부자(父子): 「링컨」은 「자유롭고 행복스러운가운데 내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으로 연결되는것이며 부모의 전제(專制)로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alone to the people of this country but, I hope, to the world, for all future time. It was that which gave promise that in due time the weight would be lifted from the shoulders of all men.—At Philadelphia, Pennsylvania, February 22, 1861.

13. They meant to set up a standard maxim for free society which could be familiar to all, and revered by all; constantly looked to, constantly labored for, and even though never perfectly attained, constantly approximated, and thereby constantly spreading and deepening its influence, and augmenting the happiness and value of life to all people of all colors everywhere. The asser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was of no practical use in effecting our separation from Great Britain; and it was placed in the Declaration not for that, but for future use. Its authors meant it to be, thank God, it is now proving itself, a stumbling block to those who in after times might seek to turn a free people back into the hateful paths of despotism.—At Springfield, Illinois, June 26, 1859.

14. The Chief Magistrate derives all his authority from the people... His duty is to administer the present government, as it came to his hands, and to transmit it, unimpaired by him, to his successor.

Why should there not be a patient confidence in the ultimate justice of the people? Is there any better or equal hope in the world?

While the people retain their virtue and vigilance, no administration, by any extreme of wickedness or folly, can very seriously injure the government in the short space of four years.—First Inaugural Address, March 4, 1861.

15. ...the assailants of the government have forced upon the country the distinct issue, "immediate dissolution or blood."

And this issue embraces more than the fate of these United States. It presents to the whole family of man the question, whether a constitutional republic, or democracy—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same people—can or cannot maintain its territorial integrity against its own domestic foes. It presents the question, whether discontented individuals,

too few in numbers to control administration, according to organic law, in any case, can always, upon the pretenses made in this case, or on any other pretenses, or arbitrarily, without any pretense, break up their Government and thus practically put an end to free government upon the earth. It forces us to ask: "Is there, in all republics, this inherent and fatal weakness?" "Must a government of necessity be too *strong* for the liberties of its own people, or too *weak* to maintain its own existence?"

Our popular government has often been called an experiment. Two points in it have already been settled: the successful establishing and the successful administering of it. One still remains—its successful maintenance against a formidable internal attempt to overthrow it. It is now for them to demonstrate to the world that those who can fairly carry an election can also suppress a rebellion; that ballots are the rightful and peaceful successors to bullets; and that when ballots have fairly and constitutionally decided, there can be no successful appeal back to bullets; that there can be no successful appeal except to ballots themselves, at succeeding elections. Such will be a great lesson of peace; teaching men that what they cannot take by an election, neither can they take by war; teaching all the folly of being the beginners of a war.—To Congress, July 4, 1861.

16.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it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we can not consecrate—we can not hallow—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have, thus far, so nobly carried on.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and that this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At Gettysburg, Pennsylvania, November 19, 1863 (the famous "Gettysburg Address").

17. It is not merely for today but for all time to come that we should perpetuate for our children's children this great and free government, which we have enjoyed all our lives. I beg you to remember this, not merely for my sake, but for yours. I happen temporarily to occupy this big White House. I am a living witness that any one of your children may look to come here as my father's child has. It is in order that each of you may have, through this free government which we have enjoyed, an open field and a fair chance for your industry, enterprise and intelligence; that you may all have equal privileges in the race of life, with all its desirable human aspirations. It is for this the struggle should be maintained, that we may not lose our birthright... The nation is worth fighting for, to secure such an inestimable jewel.—At the White House, August 22, 1864.

18. Fellow citizens, *we* cannot escape history. No personal significance or insignificance can spare one or another of us. The fiery trial through which we pass will light us down in honor or dishonor to the latest generation. We —even we here—hold the power and bear the responsibility. We will nobly save, or meanly lose, the last, best hope of earth.—To Congress, December 1, 1862.

19. The will of God prevails. In great contests each party claim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Both *may* be, and one *must* be wrong. God can not be *for*, and *against* the same thing at the same time. In the present

civil war it is quite possible that God's purpose is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either party—and yet the human instrumentalities, working just as they do, are of the best adaptation to effect His purpose. I am almost ready to say this is probably true —that God wills this contest, and wills that it shall not end yet. By His mere quiet power, on the minds of the now contestants, He could have either saved or destroyed the Union without a human contest. Yet the contest began. And having begun He could give the final victory to either side any day. Yet the contest proceeds.—Written September, 1862.

20. It has long been a grave question whether any government not *too* strong for the liberties of its people can be strong *enough* to maintain its own existence in great emergencies.

On this point the present rebellion brought our republic to a severe test; and a presidential election occurring in regular course during the rebellion added not a little to the strain. If the loyal people, *united,* were put to the utmost of their strength by the rebellion, why, must they not fail when *divided,* and partially paralyzed, by the political war among themselves?

But the election was a necessity.

We cannot have free government without elections; and if the rebellion could force us to forego, or postpone, a national election, it might fairly claim to have already conquered and ruined us.

But the election, along with its incidental, and undesirable strife, has done good, too. It has demonstrated that a people's government can sustain a national election, in the midst of a great civil war. Until now it has not been known to the world that this was a pos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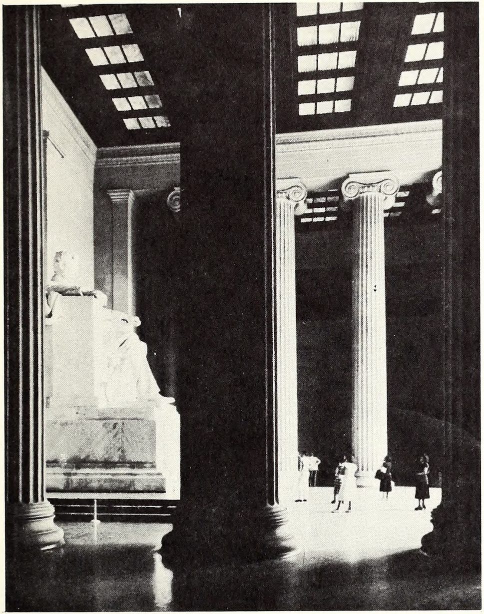
But the rebellion continues; and now that the election is over, may not all, having a common interest, re-unite in a common effort to save our common country?

May I ask those who have not differed with me, to join with me in this same spirit towards those who have?—At the White House, November 10, 1864.

21. 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with firmness in the right, as God gives us to see the right, let us strive to finish the work we are in; to bind up the nation's wounds; to care for him who shall have borne the battle, and for his widow, and his orphan—to do all which may achieve and cherish a just and lasting peace, among ourselves, and with all nations.—Second Inaugural Address, March 4, 1865.

22. It is said an Eastern monarch once charged his wise men to invent him a sentence to be ever in view, and which should be true and appropriate in all times and situations. They presented him the words, "And this too shall pass away." How much it expresses! How chastening in the hour of pride! How consoling in the depths of affliction! "And this, too, shall pass away." And yet, let us hope it is not quite true. Let us hope, rather, that by the best cultivation of the physical world beneath and around us, and the intellectual and moral world within us, we shall secure an individual, social, and political prosperity and happiness, whose course shall be onward and upward, and which, while the earth endures, shall not pass away.—To Wisconsin State Agricultural Society, September 30, 1859.

9-8590



「워싱톤」시에 있는 「링컨」기념관의내부 뒤표지는 전광에 비치인 이 기념관의 출입구이다

美國公報院 發行

